

2005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팀 대리)

1. 2005년 국내 경제동향

금년의 세계경제는 고유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전년의 5.1%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국 등 개도국과 산유국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일본의 성장 둔화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약 4.4%(IMF)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덜 둔화되고 소비도 완만하게 살아나면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가계신용조정의 마무리로 소비위축요인이 해소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연간으로 3%대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고정투자는 상반기 중 설비투자의 회복세 지연과 건설투자의 감소세 지속으로 부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져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하반기 중 수출증가율에 대한 수입증가율의 역전폭 확대로 축소되어 약 14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총수요 압력이 크지 않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05년 국내 건설동향

2004년 동안 1.1%에 그친 건설투자가 금년에도

전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1%대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경기 보안을 위한 공공 부문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기라 하겠다.

지난 8.31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 주택 경기가 냉각되고 이는 다시 건설투자 둔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국면으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체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사이 통계에서도 이러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지표 가운데 먼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17.3% 감소한데 이어 금년에도 감소와 증가를 되풀이하면서 10월까지 누계로 전년보다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감소국면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9~10월 들어서는 전년수준에 근접하여 다소 안도감을 주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금년의 전년대비 건축허가 추이를 월별로 보면 1월 (24.6% ↑), 2월 (27.3% ↓), 3월 (6.5% ↑), 4월 (30.5% ↑), 5월 (4.8% ↑), 6월 (26.4% ↓), 7월 (20.2% ↓), 8월 (9.4% ↓), 9월의 (0.0%), 10월 (2.4% ↓)하여 1~10월 누계치는 86,463천m²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이 28.0% 감소하고 공업용이 5.3% 줄어든 반면 주거용은 6.3% 늘어났으며 문교사회용과 기타도 각각 17.9%, 15.4% 증가하였다.(<표-1>) 또한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수도권이 15.1% 감소한 반면 지방은 7.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 연도별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

|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1~10월 | | |
|-----|--------|---------|---------|---------|-------------|--------|-------|
| | | | | | 전년대비 | | |
| 용도별 | 주거용 | 47,856 | 57,320 | 62,128 | 50,099 | 37,342 | 106.3 |
| | 상업용 | 25,888 | 49,862 | 45,809 | 30,966 | 19,012 | 72.0 |
| | 공업용 | 13,538 | 15,366 | 14,738 | 14,740 | 11,156 | 94.7 |
| | 문교사회 | 5,534 | 7,489 | 7,920 | 8,860 | 8,206 | 117.9 |
| | 기타 | 4,901 | 8,697 | 11,513 | 12,796 | 10,747 | 115.4 |
| 구조별 | 철골조 | 91,562 | 136,221 | 139,965 | 115,526 | 85,352 | 97.0 |
| | 조적조 | 2,056 | 2,074 | 1,759 | 1,551 | 924 | 71.7 |
| | 목조 | 181 | 171 | 373 | 383 | 186 | 54.5 |
| | 기타 | 3,918 | 268 | 11 | 1 | 1 | 128.2 |
| 합계 | 97,717 | 138,734 | 142,108 | 117,461 | 86,463 | 96.5 | |

* 자료 : 건설교통부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허가 면적과 같이 발표하는 건설경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건설동행지수인 건축착공 면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건축허가 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2〉) 그러나 주거용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면적이 6.3% 증가한데 반하여 착공면적은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이로 인한 주택경기

부진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아울러 건설선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2005년 10월까지의 국내 건설공사 총수주액은 65조 725십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48조 109십억원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은 15조 400

〈표-2〉 연도별 건축착공 동향

(단위 : 천㎡, %)

|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1~10월 | | |
|-----|--------|---------|---------|---------|-------------|--------|-------|
| | | | | | 전년대비 | | |
| 용도별 | 주거용 | 33,206 | 40,086 | 42,060 | 34,587 | 26,114 | 84.7 |
| | 상업용 | 20,165 | 38,131 | 38,270 | 27,244 | 18,614 | 78.0 |
| | 공업용 | 9,594 | 13,476 | 13,212 | 12,909 | 11,396 | 110.1 |
| | 문교사회 | | 5,777 | 7,301 | 6,439 | 5,792 | 115.4 |
| | 기타 | 7,797 | 7,669 | 8,122 | 10,101 | 8,426 | 100.8 |
| 구조별 | 철골조 | 65,157 | 102,962 | 107,193 | 89,645 | 69,323 | 90.0 |
| | 조적조 | 1,908 | 1,818 | 1,494 | 1,306 | 847 | 73.8 |
| | 목조 | 106 | 140 | 269 | 329 | 171 | 58.8 |
| | 기타 | 3,591 | 219 | 9 | 0 | 1 | 526.8 |
| 합계 | 70,762 | 105,139 | 108,965 | 91,280 | 70,342 | 89.7 | |

* 자료 : 건설교통부.

* 주 : 문교·사회용은 2002년 1월부터 조사.

〈표-3〉 연도별 건설수주 동향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1~10월 | | |
|-------|--------|--------|--------|--------|-------------|--------|-------|
| | | | | | | 전년대비 | |
| 발주자별 | 공 공 | 19,614 | 19,395 | 19,571 | 22,124 | 15,400 | 111.6 |
| | 민 간 | 28,678 | 45,655 | 58,271 | 50,410 | 48,109 | 123.3 |
| | 제조업 | 2,712 | 3,918 | 4,666 | 7,134 | 6,796 | 111.1 |
| | 비제조업 | 25,966 | 41,737 | 53,605 | 43,276 | 41,313 | 125.6 |
| | 민 자 | 2,591 | 2,546 | 2,914 | 3,918 | 2,001 | 84.9 |
| | 국내외국기관 | 112 | 238 | 141 | 136 | 215 | 181.3 |
| 공사종류별 | 건축 | 30,882 | 46,505 | 58,037 | 51,541 | 47,752 | 120.6 |
| | 주택 | 21,542 | 31,002 | 42,661 | 34,587 | 33,758 | 128.9 |
| | 비주택 | 9,340 | 15,503 | 15,376 | 16,954 | 13,994 | 104.6 |
| | 토목 | 19,968 | 21,187 | 22,713 | 24,505 | 17,484 | 114.8 |
| | 전문공사 | 145 | 142 | 147 | 542 | 489 | 105.5 |
| 합 계 | 50,995 | 67,834 | 80,897 | 76,588 | 65,725 | 118.9 | |

※ 자료 : 통계청, 최근년 「건설업통계조사」에 근거해서 총기성액의 54%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십억원으로 전년대비 11.6% 늘어나 민간부분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분이 47조 752십억원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토목부분도 17조 484십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늘어나 고른 증가율을 보였다.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 수

시멘트는 건설의 주요 기초소재로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건설공사의 외부요인인 기상여건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기와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건설경기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해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이 각각 5.3%, 17.3% 감소한 영향으로 금년 시멘트 내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기의 경우 평년의 연강수량이 1,400mm 정도이

고 연중 2~3개의 태풍이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나 금년의 경우 11월까지 1,348mm(서울 기준)로 동기간의 평년값(30년간의 평균강수량) 1,320mm 보다는 많았으나 전년동기간의 1,472mm에 비교할 경우에는 강수량이 약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절기의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나 1~2월과 12월에 걸쳐 강추위가 지속되어 동절기 수요급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26.3% ↓, 2/4분기 11.9% ↓, 3/4분기 12.0% ↓, 4/4분기 17.0% ↓ 등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16.3% 감소한 46,0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표-4〉)

(1)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표-4〉 2005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 구 분 | 수 요 | | | 공 급 | | | 재 고 |
|--------|------------------|-------|--------|------------------|-------|--------|-------|
| | 내 수 | 수 출 | 계 | 생 산 | 수 입 | 계 | |
| 1/4 분기 | 8,369 (73.7) | 916 | 9,285 | 8,972 (77.3) | 587 | 9,559 | 1,637 |
| 2/4 분기 | 14,104 (88.1) | 1,129 | 15,233 | 14,427 (91.9) | 940 | 15,367 | 1,771 |
| 상 반 기 | 22,473 (82.1) | 2,045 | 24,518 | 23,399 (85.7) | 1,527 | 24,926 | |
| 3/4 분기 | 11,077 (88.0) | 1,010 | 12,087 | 11,208 (88.0) | 890 | 12,098 | 1,618 |
| 4/4 분기 | 12,450 (83.0) | 1,025 | 13,475 | 12,693 (88.9) | 984 | 13,677 | 1,748 |
| 하 반 기 | 23,527 (85.3) | 2,035 | 25,562 | 23,901 (88.4) | 1,873 | 25,774 | |
| 합 계 | 46,000 (83.7) | 4,080 | 50,080 | 47,300 (87.1) | 3,400 | 50,700 | |

※ 주 : 11월은 속보치, 12월은 추정, 크랑카 수출 1,920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이러한 기후 변화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우기와 폭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 구분되는 특징도 최근 들어서는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성·비수기의 구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동절기의 공사중단으로 6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기임을 확

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10~11월이 연중 성수기에 해당하고 3/4분기와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표-5〉)

한편 2005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를 살펴보면 1/4분기 18.2%, 2/4분기 30.7%, 3/4분기 24.1%, 4/4분기 27.0%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8.9%, 하반기 51.1%로 각각 22,473천톤, 23,527천톤을 출하하여 하반기가 1,054천톤 더 많은데 그쳤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상반기비인 47.4%, 52.6% 보다 상반기가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서

〈표-5〉 최근 10년간(1996년~2005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출하비

(단위 :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1/4분기 | 4월 | 5월 | 6월 | 2/4분기 | 상반기 | 7월 | 8월 | 9월 | 3/4분기 | 10월 | 11월 | 12월 | 4/4분기 | 하반기 |
|------|------|------|-------|-------|-------|-------|-------|-------|------|------|------|-------|-------|-------|-------|------|-------|-------|
| 계절지수 | 53.0 | 57.4 | 107.4 | 72.6 | 119.1 | 119.2 | 112.0 | 116.8 | 94.7 | 96.8 | 97.0 | 101.3 | 98.4 | 119.1 | 119.0 | 98.5 | 112.2 | 105.3 |
| 구성비 | 4.4 | 4.8 | 9.0 | 18.2 | 9.9 | 9.9 | 9.4 | 29.2 | 47.4 | 8.1 | 8.1 | 8.4 | 24.6 | 9.9 | 9.9 | 8.2 | 28.0 | 52.6 |

〈표-6〉 2005년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1~10월 | |
|--------|--------|--------|--------|--------|-------------|------|
| | | | | | 37,503 | 전년대비 |
| 수 민 수 | 49,283 | 53,603 | 57,505 | 54,187 | 37,503 | 84.2 |
| 요 관 수 | 772 | 689 | 797 | 755 | 539 | 85.9 |
| 별 민수비중 | 98.5 | 98.7 | 98.6 | 98.6 | 98.6 | |
| 품 포 장 | 5,646 | 5,919 | 5,831 | 4,948 | 3,312 | 79.3 |
| 종 별 크 | 44,409 | 48,373 | 52,471 | 49,994 | 34,730 | 84.7 |
| 별 크화율 | 88.7 | 89.1 | 90.0 | 91.0 | 91.3 | |
| 합 계 | 50,055 | 54,292 | 58,302 | 54,942 | 38,042 | 84.2 |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시멘트 내수감소가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먼저 수요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전체 국내출하 38,042천톤중 민수가 37,503천톤으로 98.6%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1.4%인 539천톤에 그쳤다. 이는 2003년, 2004년과 동일한 비율로 이처럼 민수의 비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된 현상은 민수 비중의 증가가 한계에 이르러 관급조달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6〉)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4,730천톤으로 전체의 91.3%로 파악, 전년동기의 90.8% 보다 0.5%포인트 증가하여 연말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의 벌크화율을 보인 지난해의 9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벌크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신속, 편리한 이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형·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생 산

시멘트는 석회석의 채광, 분쇄, 소성과정을 거쳐

중간제품인 크링카로 만들어진 다음 이 크링카를 분쇄하여 시멘트라는 완제품으로 생산되어진다. 먼저 반제품인 크링카의 생산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12.3% 감소한 42,3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8,890천톤(15.9% ↓), 2/4분기 12,487천톤(5.7% ↓), 3/4분기 10,539천톤(10.2% ↓), 4/4분기 10,384천톤(18.2% ↓)으로 연중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8,972천톤(22.7% ↓), 2/4분기 14,427천톤(8.1% ↓), 3/4분기 11,208천톤(12.0% ↓), 4/4분기 12,693천톤(11.1% ↓)을 기록하여 크링카와 같이 감소 국면속에 연간으로도 전년보다 12.9% 감소한 47,3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68.4%로 예상되어 1996년 92.5%, 1997년 94.7%는 물론이고 전년의 78.0%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가동율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다. 수 출 입

2004년 3/4분기 이후 지속된 환율하락세로 수출 단가면에서 악재로 작용하였으나 국제 시멘트 시세는 소폭이나마 상승세가 지속되어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어느 정도 상쇄해 주었다. 다행히도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여 올해 수출실적(추정)은 사상 최대인 6,000천톤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수출은 내수침체를 만회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였으며 내년 또한 그다지 내수 전망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어 국제 시세 상승세와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출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최근 수년간의 건설경기 회복세는 올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그 여파로 시멘트 국내수

〈표-7〉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 2004년 | 2005. 1~11 |
|---------|-------|------------|
| 미 국 | 1,813 | 2,336 |
| 일 본 | 782 | 796 |
| 나이지리아 | 42 | 678 |
| 도미니카 | - | 346 |
| 남아공 | - | 295 |
| 가 나 | 313 | 222 |
| 카타르 | - | 185 |
| 과테말라 | - | 164 |
| U.A.E | 618 | 142 |
| 아이보리코스트 | 35 | 106 |
| 탄자니아 | - | 42 |
| 칠 레 | 86 | 37 |
| 방글라데시 | 34 | 35 |

* 주 : 크링카 포함.

오는 격감하였고 시멘트 업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물량 증대에 나선 결과 올해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47.7% 증가한 6,000천톤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실적을 보면 금년도 수출대상국은 24개국으로 전년의 17개국과 비교시 7개국이 늘었으며 중동의 카타르, 중미의 도미니카,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신시장 개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7〉)

품종별로 보면 시멘트는 4,080천톤으로 전년대비 54.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크링카도 1,920천톤으로 35.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 전체 수출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의 경우 68.0%로 전년의 65.0%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다.(〈표-8〉)

이와 같이 시멘트 수출비중이 늘어난 것은 미국, 아프리카로의 시멘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크링카 수출 또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중동, 중미, 아프리카의 신시장으로의 크링카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멘트 수출형태는 벌크로 4,064천톤, 포장수출은 16천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표-8〉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E) |
|-----|-------|-------|-------|-------|---------|
| 크링카 | 1,645 | 905 | 535 | 1,420 | 1,920 |
| 시멘트 | 3,001 | 2,488 | 2,612 | 2,641 | 4,080 |
| 합 계 | 4,646 | 3,393 | 3,147 | 4,061 | 6,000 |

추정된다.

한편 수입은 최근 들어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바 금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400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표-9〉)

2003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중국산 시멘트의 경우 금년에는 일부 업체의 계약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13.2% 감소한 1,915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산은 전년보다 22.9% 증가한 1,485천톤으로 추정된다.

금년의 경우 크링카 수입은 없었으나 내년에도 시멘트 수입은 국내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재 고

시멘트는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산능력의 변동이 쉽지 않은데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송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관개로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시멘트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적정재고라는 개념 또한 항상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9〉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E) |
|-----|-------|-------|-------|-------|---------|
| 크링카 | 96 | 3 | 70 | 22 | |
| 시멘트 | 989 | 1,189 | 1,809 | 3,398 | 3,400 |
| 합 계 | 1,085 | 1,192 | 1,879 | 3,420 | 3,400 |

〈표-10〉 2005년 월별 크링카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크링카 | 1,781 | 1,809 | 1,936 | 1,595 | 1,616 | 1,741 | 1,775 | 2,029 | 2,176 | 1,915 | 1,506 | 1,743 |
| 시멘트 | 1,662 | 1,780 | 1,637 | 1,358 | 1,621 | 1,771 | 1,786 | 1,627 | 1,618 | 1,726 | 1,404 | 1,748 |

* 주 : 12월은 추정.

금년의 시멘트 재고추이를 보면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이 없이 꾸준히 1,600~1,700천톤대의 재고를 유지하였으며 크링카의 경우는 2,000천톤을 넘어서기도 하여 재고추이로도 내수부진을 가늠케 하였다. (〈표-10〉)

마. 수 송

일부 산업 및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호전 지표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에 수반된 시멘트 생산 및 내수의 부진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어 금년 10월까지의 수송실적은 전년동기간의 46,442천톤에 비해 13.3% 감소한 40,267천톤을 수송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여파로 인해 수송량이 급감했던 98년 동기간의 38,732천톤과 비교해서도 4.0% 밖에 높지 않은 수치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송량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

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수송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선박을 통한 수송분담비가 지난해부터 점차 증가해 전체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며, 총 물동량 측면에서는 연안사보다는 내륙사가, 대규모 생산업체보다는 소규모 생산업체의 수송량 감소폭이 더욱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업체가 생산공장의 가동을 제고와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로를 해외로 돌려 전년보다 시멘트 및 크링카의 수출량이 30% 이상 늘어났다는 점과 타수송수단에 비해 대량수송을 통해 물류비를 낮출 수 있는 선박수송을 업체가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송수단 및 유통기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사유화차 수량 감소 및 유통기지의 감축운영에 따른 제반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

시사 용어 해설

▶ 배아줄기세포

수정 후 10일안에 배아에서 추출한 아직 분화가 시작되지 않은 세포로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배아복제 : 자연적인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복제하려는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덩어리(배아)로 키운 것을 말한다.

체세포복제 : 수정란을 이용한 생식복제가 아니라 난자의 핵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체세포의 핵을 투입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 생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핵치환 :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이미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어주는 기술이다.

멕시코, 시멕스社, 판매실적 급증

시멕스사의 올해 3/4분기까지 매출액은 RMC사의 합병에 따른 효과로 91.7% 증가한 112억 8,430만달러(미국달러화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EBITDA 역시 40.9% 증가한 26억 3,89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시멘트 부문은 5,093만m³를 기록, 2.8배가 증가한 레미콘 출하와 3.5배 증가한 1억 1,780만톤을 수출한 골재부문 호조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5,987만톤을 출하하였다. 수출부문은 42.3% 증가한 19억 6,7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50.3%가 증가한 순이자비용 3억 7,020만달러를 제외한 세전영업이익은 41.3%가 증가한 15억 9,68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9월말까지의 부채는 89억달러로 자기자본비율은 86.3%이다.(6월말까지 자기자본비율 102.5%, 전년 동기 자기자본비율은 62.7%) 에너지 비용은 시멘트 톤당 1.5달러 정도 증가하였지만 시멘트가격(그룹 평균)이 그 이상 증가하여 이같은 판매실적 호조에 밑바탕이 되었다.

멕시코에서는 8.9% 증가한 22억 9,750만달러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나 EBITDA는 포장시멘트 부문의 수요 약화로 0.7% 감소한 9억 3,53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전체 출하는 1%가량 감소하였고 평균가격은 폐소화 기준으로 3%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5%를 넘어서는 상승이다. 그룹내부에서는 3/4분기에 판매량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뚜렷한 상승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4/4분기와 내년도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의 가격인상에 힘입어 매출실적은 105.9% 증가한 29억 9,72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EBITDA는 124%나 뛰어 오른 7억 4,49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시멘트 출하는 5~7% 정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Votorantim 그룹의 2개 시멘트 공장 매각으로 RMC 그룹 산하 한개 공장에서만 출하가 이루어진데 기인하고 있다. 공업 및 상업부문 시멘트 수요는 현재 호전 중이다.

남미와 중미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국가의 경우

9.7%가 증가한 10억 23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EBITDA는 동지역에서 시멘트가격이 평균 11%가 하락(미국달러화 기준)함에 따라 23.8%가 감소한 2억 8,61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동지역 국가들의 시멘트 내수는 평균 14%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들 국가에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경우 3/4분기에 각각 38%, 30%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실적개선은 레미콘부문의 내수 증가(24% ↑), 골재부문의 수출 증대(22% ↑), 5% 인상된 시멘트 가격에 기인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43억 3,44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EBITDA는 7억 2,67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인 여전히 시멕스사 이익의 주요 원천으로서 20.6% 증가한 11억 3,29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EBITDA는 15.1% 증가한 3억 3,58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3/4분기에 2% 하락하였으나 6%의 가격인상(유로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5%대의 성장을 나타냈다.

영국에서는 9월까지 시멘트 수출이 2% 감소하였으나 3/4분기에 8% 가격인상으로 11억 4,220만달러의 매출과 1억 2,330만달러의 EBITDA를 기록하였다. 레미콘 판매는 1% 하락하였지만 가격은 5% 인상(달러화 기준)되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11월호)

중국 안후이 콘치社, 이익 감소

중국 최대의 시멘트 생산회사인 안후이 콘치社가 올 상반기 중국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과 급등하는 에너지비용으로 인해 이익이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19.1% 증가한 45억 1,000만 위안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88.5%나 폭락한 9,141만위안을 기록하였다. 직접투자가 고착화하면서 시멘트수요가 더딘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시멘트가격 경쟁은 안후이 콘치사의 주요 시장인 상하이, 절강성, 안휘성 및 강소성 등지에서 크게 격화되었다.

동사의 총경리인 장밍징은 영업환경이 상반기에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될 신호가 없다. 성수기인 하반기에는 영업비용 절감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거센 경쟁으로 인한 복합적인 충격으로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연료비의 급증으로 그룹의 상반기 세전순이익은 지난해 40%에서 19% 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올해 전체 세전순이익 역시 19%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생산에 있어서 유연탄과 전기에 크게 의존하듯 안후이 콘치사도 상반기에 43%나 급증한 유연탄 가격과 7% 증가한 전력 비용 상승에 직면하였다.

장밍징 총경리는 “유연탄 가격은 이달초부터 다소 진정되어 상반기보다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이 74.2% 증가한 2억 177만위안까지 치솟자 그룹의 비용절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물류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1억 5,856만위안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3억 3,541만위안이었으며 매출원가는 83.9% 증가한 36억 4,000만위안이었다.

시멘트 가격을 둘러싼 경쟁심화는 시멘트와 크링카의 급격한 내수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올 상반기에만 66% 증가한 2,421만톤을 출하하였으며 매출실적으로 보면 19.1% 증가한 45억 1,000만위안이다. 상반기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장밍징 총경리는 하반기에 생산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6억~7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9월호)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으로 시멘트 소비 증가

미국의 시멘트산업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시

멘트협회(PCA)의 발표를 인용, 지난번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영향으로 멕시코만 유역의 시멘트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뉴올리언스 재건에 적어도 향후 4~5년 동안 400만톤 이상의 시멘트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의 항구폐쇄에 따른 시멘트 공급증단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트리나에 의해 뉴올리언스를 잠기게 한 물이 빠지면서 건축물 잔해 등 피해범위가 드러나기 시작, 잠정집계에 따른 재산피해만 12억달러를 초과하여 카트리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후에는 보통 시멘트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보통의 허리케인은 지붕을 날려버리는 등 바람에 의한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지만 뉴올리언스에서는 수몰로 인한 피해가 구조물 피해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로 빌딩 기초공사에 고성능 콘크리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은 비주거용 건물이 홍수에 의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대체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만 유역의 시멘트수요 증가는 수해에 따른 쓰레기 청소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청소가 적어도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주의 경우 2~4개월, 뉴올리언스의 경우 5~9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소가 끝나면 재건축 뿐만 아니라 카트리나 피해 전부터 이미 시작됐던 공사들도 완성될 것이다.

뉴올리언스항은 미국의 전체 시멘트 수입물량의 10%를 처리하는 두번째로 큰 시멘트수입 항구인데 카트리나 피해로 인한 항구폐쇄에 따른 단기간의 수입감소는 쓰레기 청소 기간동안 재건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며 시멘트 수출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항구로 재조정 했다”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10월호)

태국 아시아시멘트社, 매출 감소

태국의 4위의 시멘트 업체인 아시아시멘트社의 Nopadol Ramyarupa 전무이사는 높은 에너지 비용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에서 올해 역시 7%의 매출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시아시멘트社의 올해 매출목표는 50억바트 이상이며 순이익은 지난해 9억바트를 초과하는 최소 10억바트였었다.

방콕은행이 주요주주인 동사(同社)는 구매에 차질이 생긴 유류시세의 영향으로 지난 3년 동안에 비해 올해 시멘트 소비가 줄어들었다. Nopadol은 올해 시멘트 소비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약 2,550만톤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태국의 상위 2개 업체인 Siam Cement社와 Siam City Cement社의 올해 전망치인 2,800만톤보다도 못미치는 실적이다.

아시아시멘트社의 전무이사인 로베르토 칼리에리는 “비록 지난 3년 동안 국내 시멘트 수요는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현재상황은 변했다.”고 밝히고 내년도 시멘트수요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예측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10월호)

인도네시아,

시비농社 공장폐쇄 영향 최소화

홀심(Holcim)그룹의 일원인 PT Semen Cibinong社는 지난 7개월 동안 공장중의 하나를 폐쇄하는 계획이 다른 시멘트공장에서 생산을 늘려야 하는 만큼 시멘트 생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비농사는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자바섬 중부지역의 Cilacap에 위치한 시멘트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Cilacap공장의 대변인인 Deni Nuryadain은 밝혔다.

“우리는 두번째 공장으로부터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며 시장의 혼란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Nu-

ryadain은 밝혔다. 또한 그는 서스펜션 교체가 국영 전력회사인 PLN사의 연료점화 발전기로부터 공장의 동력공급을 교체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교체가 공장의 에너지 비용을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공업용 연료 사용자들은 종전의 경우 시장 가격의 75% 수준에서 지불해 왔으나 지금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유류 보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인상을 단행하였다.

Nuryadain은 앞서 언급한 PLN사의 전기공급에 대한 시설 교체가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Cilacap의 두번째 공장이 첫번째 공장의 폐쇄로 떨어진 생산량을 상쇄하기에 적절한 생산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10월호)

베트남, 최신 프로젝트 추진

베트남 국영 개발기금은 미화 4,370만달러에 달하는 Tay Ninh 시멘트 공장의 건설을 승인했다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

Tay Ninh 합자회사의 Mai Ngoc Liem 이사는 비록 건설자금이 당초 계획한 1억 7,680만달러에 27% 수준에 불과하지만 계획의 성공에 무척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승인이 EPC(기술·조달·건설)계약형식으로 치러질 시멘트 공장 입찰에 대한 수출조건 결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될 공장은 하루 4,000톤의 크링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산 150만톤 규모의 시멘트를 생산할 것이다. 동 계획은 연간 생산능력 126만톤의 크링카와 9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Tan Chau 지역에 위치한 1억 6,700만달러의 본공장 건설계획과 HCM시티의 Hiep Phuoc 인더스트리얼 공원에 건설하는 1,200만달러에 달하는 연산 60만톤의 시멘트 분쇄기지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Liem 이사는 공장 건설이 2007년말까지 완공되어 남부지역 시멘트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초에는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y Ninh는 베트남에서 풍부한 석회석과 점토를 가진 몇 안되는 시멘트 생산에 가장 이상적인 지역 중의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대 7,870만톤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Tay Ninh의 Soc Con Trang 광산에서 시멘트 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동지역의 크링카 가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9월호)

필리핀, 시멘트 수요 5% 하락 전망

필리핀의 시멘트 업체들은 공공부문의 소비 감소로 인한 건설산업 활동 둔화로 올해 시멘트 수요가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필리핀 시멘트협회 회장인 Renato Sunico는 올해 국내 시멘트 소비가 지난해 1,200만톤에서 60만톤이 줄어든 1,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밝혔다.

그는 “해외로 유출되는 필리핀 노동자를 위한 풍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과 건설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주택건설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말하고 시멘트산업 조업도는 지난해 60%에서 하락한 50~55%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년간 평균 조업도는 53%이다.

라파즈 필리핀사는 업계내에서 최대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가동률 중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홀심 필리핀사가 33%, 시맥스 필리핀사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Sunico 회장은 또한 국내 시멘트산업이 저가 시멘트수입에 대항하는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필리핀은 보호조치가 없는 유일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는 중국의 경기과열 진정에 따른 시멘트 초과공급을 필리핀에 덤핑수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호조치는 말할 것도 없이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저가 수입시멘트와 경쟁해야 한다”고 Sunico 회장은 밝혔다.

현재 수입시멘트는 토종브랜드보다 2페소 정도 저렴하며, 40kg 짜리 1포당 150~165페소에서 유통되고 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10월호) ▲

시사 용어 해설

▶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인간복제금지, 체세포복제금지, 이종간 핵이식금지를 골자로 한다. 다만 이종간 핵이식을 포함한 체세포복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하고 있어 난치병 치료의 수단인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을 받게 되어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다. 생명윤리법이 생명윤리와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단체, 종교계와 오히려 과학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과학계의 입장 차이로 법안 내용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다.